



'위기의 흥명보호' 손흥민이 구했다

10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 후반전, 손흥민이 두 번째 골을 득점한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2차전 오만전 3대1

'월드클래스 존재감' 손흥민 결승골+2도움 맹활약 '사면초가' 흥명보, 10년만의 대표팀 복귀 승리 신고

흥명보호가 막판에 터진 손흥민(토트넘)의 결승골을 앞세워 오만을 물리치고 출항 두 경기만에 첫 승리를 신고했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만 무스카트의 숄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결승골, 후반 추가시간 주민규(울산)의 쐐기골을 엮어 오만에 3-1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37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도움을 받아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렸고 황희찬, 주민규의 골을 배달하는 등 1골 2도움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던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승점 3을 챙겨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오늘처럼 어려운 경기에서 승점 3을 챙겨 너무 기쁘다"

고 밝혔다. "항상 승리가 너무나도 좋다"는 손흥민은 "그렇게 승리하려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오늘 모든 선수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도달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약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치른 1차전에서 0-0 무승부에 그친 흥명보호는 이로써 출항 두 경기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 속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데다 '약체' 팔레스타인과 1차전에서 0-0 충격의 무승부에 그쳐 사면초가에 몰렸던 흥 감독은 원정에서 거둔 귀중한 승리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흥 감독은 2014년 3월 그리스전(2-0) 이후 10년 6개월 만에 A매치 승리를 지휘했다. 오만 원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승리한 한국은 통산 상대 전적에서 5승 1패로 격차를 벌렸다. 한국은 요르단에 이은 B조 2위(승점 4·1승 1무·골 득실 +2)로 올라섰다. 한국은 내달 10일 요르단 원정으로 3차전을, 15일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4차전을 소화한다. /연합뉴스

독일 꺾은 박윤정호, 오늘 콜롬비아와 8강 격돌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 대표팀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2024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한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U-20 여자 축구 대표팀은 12일 오전 10시부터 개최국 콜롬비아와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D조에 나이지리아에 0-1로 지고, 베네수엘라와의 2차전에선 0-0으로 비기며 16강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나 3차전에서 독일을 1-0으로 잡으며 D조 3위(승점 4)로 마쳤다. 조 3위 6개 팀 중 3번째로 좋은 성적을 낸 한국은

국적으로 16강에 합류했다. 2014년 캐나다 대회(8강) 이후 10년 만에 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한 한국의 다음 목표는 '14년 만의 단판 승부 승리'다. 한국의 이 대회 단판 승부 승리는 역대 최고 성적인 3위에 오른 2010년 3-4위전이 마지막이다. 박윤정 감독은 "16강에 올라와 응원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도취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고 선수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면서 "콜롬비아는 특히 공격에서 스피드와 개인 능력, 마무리가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수비에서 집중하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IA, 덕수고 우완 김태형 1라운드 '낙점'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덕수고 우완 김태형 등 새로운 야기호랑이 11명을 지명했다. KIA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김태형(덕수고·투수) 등 총 11명의 선수를 뽑았다. 김태형은 최고 시속 151km의 위력적인 빠른볼과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즉사전력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주말

리그에서 9이닝 노히트노런을 기록했던 김태형은 프로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다면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라운드에서는 이호민(전주고·투수)을 지명했다. 이호민은 제구력이 좋고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우완투수이다. 특히 체인지업이 좋다는 평가이며 뛰어난 탈삼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3라운드에서는 박재현(인천고·외야수)을 뽑았다. 박재현은 뛰어난 컨택 능력과 빠른 발이 장점인 선수로, 올해 U-18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주전 외야수와 리드오프로 활약했다. 4라운드에서 지명한 양수호(공주고·투수)는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볼과 공의 움직임이 좋아 '우완 파이어볼러'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이다. 5라운드 김정엽(부산고·투수)은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우완 투수로 중간 투수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6라운드 최건희는 군필 우완투수이다. 빠른 구속과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던지는 체인지업이 주무기로, 불펜



11일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 타이거즈에 1라운드 5순위 지명을 받은 김태형(덕수고)이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투수로 즉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민민 KIA 타이거즈 운영1팀장은 "우완 투수를 주로 지명했으며, 신체 조건이 뛰어나고 빠른 공을 던지는 유형과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유형을 고르게 지명했다"며 "야수는 주력과 수비에 강점을 보인 선수를 지명해 미래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흥칠 기자

전남도체육회,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 성료



전남도체육회는 10-11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스포츠클럽의 직무 역량강화와 클럽간 소통의 기회를 장인 '2024년 전남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남의 36개 공공스포츠클럽(종합형 19개·한종목 17개) 사무국장 및 행정직원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지역사회 결속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는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전남도체육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나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청 고승환 '金'·이재성 '銀'

실업단체항육상 200m

광주시청 고승환과 이재성이 제20회 KTF 전국실업단체항육상경기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승환은 11일 서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58을 기록하며 가장 먼저 파니시라인을 통과했다. 함께 출전한 이재성은 20초73을 기록, 20초80의 서민준(서천군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고승환과 이재성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김국영, 이정태와 호흡을 맞춰 400m 계주에서 한국 타이 기록인 38.47초를 수립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광주시청은 대회 첫날인 10일 남자 400m 계주 금메달(김국영·이재성·강의



11일 열린 전국실업단체항육상경기대회 200m에서 금, 은메달을 따낸 고승환과 이재성.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빈·김태효)과 여자 100m 금메달(강다슬), 남자 100m 은메달(이재성), 여자 1만m 동메달(노현진)을 기록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당구연맹, 제105회 전국체전 발대식

박종규 회장 "선수단 선전 기원" 티넨탈 수상자들이 신임 홍보대사로 위촉돼 광주당구연맹을 알리고 적극 응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종규 회장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광주당구연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조선대 여자 셔틀콕, 전 종목 석권

김학석배 연맹총별선수권, 단식·복식·혼복·단체전 금 개인 단식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가졌다. 배우영이 개인 단식 결승에서 팀 동료 이은희를 2-1(19-21 21-13 21-18)로 이겼다. 개인 복식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확했다. 배우영-이아영 조가 결승에서 팀 동료 엄수빈-이은희 조를 2-0(21-16 22-20)으로 꺾었다. 조선대 이아영은 대학부 혼합복식에서 추찬(김천대)과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아영-추찬 조는 결승에서 엄상하(경희대)-김나현(중앙대) 조를 2-0(21-17 21-9)으로 물리쳤다. /박희중 기자